

경제원리의 성격과 발견: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¹⁾

박 우 희

경제학은 경제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만물의 이치인 원리 중에서도 경제에 관한 원리를 경제현실 속에서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경제원리가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제원리의 참 뜻 나아가 그 뿌리를 알고, 그것을 찾아내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경제원리(보편언명의 뿌리)를 잘못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원리를 경제현실 속에서 찾지 않고 경제현실 아닌데서 찾으려하는데 있다. 경제현실을 자연현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찾는 방법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근원적으로 현실=존재론적이어서 거의 절대적인 물리환원적 현대과학기술을 동원하면 천지현황한 우주(cosmos)를 향해하거나 분자수준의 생물체의 구조까지 큰 오차 없이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현실은 자연법칙적인 요인도 공존하지만, 인간의 가치, 영감, 오욕(五慾)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서로 연기되고 변전되기 때문에 복잡하며, 자연원리와 다른 나름의 원리가 작동된다.

이 글의 목적은,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자연법칙적, 물리환원적, 표준 과학적 방법, 즉 몇 개의 단순 가정으로 방정식을 설정한 뒤 임의로 몇 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풀이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가상(假像)에 빠지게 되고 현실에 없는 인위적인 그림을 그리게 됨을 밝히는 데 있다. 경제원리를 찾는 데 ‘인간학(人間學)’을 멀리 하는 한 원리와 현실 간의 간극을 도저히 메울 수 없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2장에서 원리와 경제원리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있지만, 이런 원리는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좀처럼 번치 않는 ‘보편언명(普遍言明)’의 뿌리임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방법론과 인지과학적 접근법을 동원해서 보편언명의 뿌리를 찾는 터널을 경유해야만 색안경을 벗고 경제원리를 찾을 수 있음을 밝힌다. 참고로 E. H. Carr의 접근법을 예시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색안경을 벗으면서 경제원리를 찾는 구체적인 길을 밝힌다. 예컨대 Keynes와 Friedman, Smith와 Marx, Ricardo, Veblen, Kahneman 등을 예시한다. 제5장에서는 철학·방법론 및 인지과학적 긴 터널을 경유하면서 밝힌 경제원리의 모습과 성격은 “물처럼 흐른다”로 요약되는바, 그 가변성(可變性), 연기성(緣起性), 불완전성(不完全性), 간극성(間克性) 등을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원리는 옛과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여건이 전혀 다른 21세기의 생명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것임을 밝힌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우

(1) 이 글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제원론과 미시·거시경제학 등 교과서내의 여러 경제원리를 몇 개 추려 간단히 평가하면서 이들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주제어: 보편언명의 뿌리, 경제현실,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인간학, ‘물처럼 흐른다’

1. 원리는 어디든 또 언제나 있다⁽²⁾

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 동서고금, 문화와 나라,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또 그 성격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이런 원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또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다. 우주만물과 세상만사는 사실(facts)과 원리로 짜여 있고, 그래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도 원리로 짜여 있다.

몇 가지 원리의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우리 생활 속의 격언(格言)이나 가훈(家訓), 속담(俗談) 또는 매일 읽는 신문 기사, 특히 제목 뽑기나 책 이름을 붙이는 일, 문장내의 수사, 이 모두 원리의 실 예들이다. 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뽑는 일, 연구의 제목을 찾는 일, 중요 논문의 과제를 선택하는 일, 이들 또한 원리를 찾기 위해서다. 우리는 종교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가운데서 어떤 진리, 즉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을 흔히 예언자, 도인, 철인, 현인 또는 위대한 학자라 칭한다.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Agape)이라던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慈悲)와 연기(緣起), 공(空), 또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과 천(天), 도교에서 말하는 무(無),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말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알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궁극적인 종교의 원리들은 여러 다른 작은 원리들, 예컨대 구약의 지혜서나 잠언들, 나아가 신약의 “남들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 줘라.(Do to others whatever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마태복음 7장 12절)”, 또는 논어 안연(顏淵)편의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人)와 같은 금언 등으로 짜여 있으며, 이런 작은 원리 외에도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더 작은 원리들로 서로 이어져 있다.

자연 현상에도 우리가 교과서나 기타 여러 전문 서적에서 언제나 만나는 법칙과

(2) 박우희(2014),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서울대출판문화원, pp.11~18 참조.

이론 등 원리가 무수히 많다. 낙하 법칙 $S=(\frac{1}{2})gt^2$ (단 S = 가속도, g = 무게, t = 시간), Newton의 운동법칙 $F=ma$ (단 F = 힘, m = 질량, a = 가속도), Einstein의 상대성원리 $e=mc^2$ (e =에너지, m =질량, c =빛의 속도), Planck의 양자원리 $E = hf$ (단 E = 에너지, h = 상수, f = 진동수), 빅뱅이론, Coulomb의 정전기 반발법칙, Maxwell의 전자파이론, Bohr-Kraemer-Slater의 원자구조이론, Wegener의 대륙표류이동 등이 중요한 자연원리가 되며, Darwin의 적자생존, 약육강식, 진화론, Mendel의 유전법칙, 맥이사슬 등이 생물계의 원리가 되고, Freud의 오이디푸스 이론이 인간심리의 기본원리가 된다.

사회현상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동양 한문의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격물치지(格物致知), 역지사지(易地思之), 과유불급(過猶不及),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새옹지마(塞翁之馬), 교토사이주구팽(狡兔死而走狗烹), 가인박명(佳人薄命), 공칠과삼(功七過三), 한국의 한(恨), Hegel의 정·반·합(正·反·合), 그리고 생활에서 회자되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사회·생활 원리들이 존재하며 이들도 여러 작은 원리들과 짝 짜여 있다.

경제현상에서는(경제원론과 미시·거시경제학, 기타 다른 여러 분야에서 용어나 뜻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거나 잘못된 원리를 열거하기도 하지만) 먼저 개념 중 선택, 한계, 효율, 인과, 기회비용(機會費用), 차액지대(差額地代), 비교우위(比較優位), 소비자잉여, 승수(乘數), 가속도, 인센티브, 한계효용(限界效用), 렌트, 유동성, 집약도,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 위험기피도, 규모경제(規模經濟), 외부효과(外部效果), 창조적 파괴, 야생적 충동, 빈곤함정, 불태화, 불확실성, 정보비대칭성, 랑겔만 효과, 압축성장, 자유, 평등, 대항력(countervailing force) 등 수없이 많다. 이런 개념 중 수요·공급, 기회비용, 인센티브, 규모경제, 외부효과 등은 우리 생활 중 언제나 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중요한 원리들이다.

가설이나 이론, 모델 또는 법칙에서는(여기서도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가상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Say 법칙, Engel 법칙, Gresham 법칙, 화폐수량설, Phillips 곡선, 생애주기 가설, 독점적 경쟁이론, 보험의 역설, 메뉴비용이론, 자연실업률 가설, Coase 정리 등이 있다. 또 Lewis 모델, Harrod-Domar 및 Cobb-Douglas 성장모델, 내생적 성장이론, Keynes 이론의 모양새를 갖추는 데 기여한 여러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모델, 중첩세대모델, 주인-대리인 모델, 투자옵션모델, 화폐적 착오모델 등이 있다.

요즘 널리 읽히는 경제원론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글에도 경제원리의 예가 많이 있지만, G. Mankiew 저 『경제학 원리』에서도 경제원론에서는, 경제원리란 용어를 처음 쓰면서, 10대 기본원리로 선택이론, 기회비용, 한계이론, 인센티브제, 자유경제, 시장경제, 정부개입론, 생산력설, 화폐수량설, Phillips 곡선을 들고 있다. 동양에서도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열전(史記列傳) 중 화식열전(貨殖列傳)에 경제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공급에 관한 글 외에, 서비스, 지식, 재정, 금융, 제도, 경제정책일반에 관한 여러 글에서 호리지성(好利之性), 부국강병(富國強兵), 선부후교(先富後教) 등 지금 우리도 시인할 수 있는 경제원리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2. 이때 원리의 뜻은?⁽³⁾

위에서 살펴본 원리의 여러 예에서 어렵듯이 찾아지는 원리의 뜻은, 한마디로 현실을 대변(대표, 반영, 표현, 표상)하는 ‘보편언명’(普遍言明)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개의 중요 변수를 선택하는 등 추상화 또는 단순화하여 이것을 귀납적으로 검증 및 반증한 후, 여기에서 우연하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큰 흐름, 경향, 추세, 패턴, 법칙과 이론 등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상을 더욱 잘,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리란,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 단순화, 체계화, 이상화, 일반화 또는 형식화하여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몇 개의 개념과 변수를 추려, 이를 인과관계로 짜인 방정식이나 말 등으로 표현한 것을 뜻한다. 이들은 규칙적(regularly)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흔히 보편언명(universal statements), 혹은 보편적 일반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단칭언명(單稱言明)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런 원리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는 원리는 현실의 바탕, 또는 원동력이 되는, 즉 현실이 이들 원리를 축으로 움직이는 원리이다. 이런 원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리 쉽게 변치 않는 보편언명으로서, 우리의 말과 문장, 사고도 이런 원리로 짜여 있고, 이런 원리를 찾는 것이 학문이며, 철학이며, 지혜다. 이것은 현실에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핵’이나 ‘중심’으로 하여 현실이 움직이는 어떤 큰 힘, 단

(3) 필자, 전계서, pp.19~32 참조.

순히 형식적으로 몇 마디 말이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것 또는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 변화의 ‘바탕’, ‘기저’, ‘기본’이 되는 힘이다. 경제학 교과서등에서는 흔히 개념, 가설, 모델, 이론, 법칙 등을 이른다.

위에 서술한 원리의 통상적인 뜻은 그 뿌리 철학을 살펴보면 원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현실(사실, 실제, 존재 등)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또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원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arché는 본원, 시원, 근원, 시초, 유래, 나아가 본체, 실재 등 여러 뜻을 함축한다. 즉 인간의 지적탐구와 이성적인 세계 이해, 예컨대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 생명체가 탄생하는 원리, 사회가 변화하는 원리, 경제가 발전하는 원리 등의 뿌리를 말한다. Plato도 “원리란 다른 존재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 것”이며, “가장 근원적인 것은 모든 것의 앞에 있다.”고 한다. Aristotles는 원리는 “한 사물의 생성의 일차적이고 내재적인 요소”라고 하고, 출발점으로서의 원리, 근원으로서의 원리, 인식의 토대로서의 원리를 중시한다.

그러면 원리 중 철학자가 말하는 법칙이란 무엇인가? 법칙, 이법, 섭리, 필연 등 여러 개념의 바탕이 운명(moira)인데, 그 뜻은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숙명적이고, 여기에는 법칙적 ‘필연(ananke, necessitas)’과 ‘당위’가 포함된다. 기계론적 필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고, 이유도 없는, 오직 그렇게 될 뿐인’ 필연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연’이다. 왜 우주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가? 아무런 형이상학적인 이유가 없다. 우연일 뿐이다. 이때의 우연은 우발성의 개념과 확률론적인 개념을 동시에 내포한다.

그런데 Plato과 Aristotles는 이 세계의 법칙성을 기본적으로 ‘목적론적’으로 본다. 법칙적 필연(ananke)은 부차적인 원인이고 일차적인 원인, 즉 원리는 이성이나 목적, 형상이다. 예컨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수학적으로 서술 가능한 방식으로 도는데, 이것이 Democritos에게는 우연(우발성)이지만 Plato에게는 조물주가 이성적으로 어떤 형상, 즉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Aristotles는 ananke의 뜻을 ① 어떤 것의 본질은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 ② 어쩔 수 없는 제약(운명), ③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현대적인 필연), ④ 논리적 필연성, ⑤ 단순성으로서의 ananke 등으로 정의한다.

16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들 세 철학자는 모두 형상(≠질료)철학적이고, 목적론(≠기계론)적이며, 초월적(≠내재적)인 사유를 지닌다. 이것이 서양철학사의 기본 흐

름이다. 예외가 Stoa 학파와 Epicuro 학파이다. 이들은 유물론적이고 현실적-내재적 철학을 펼친다. 이들에게는 필연도 어떤 목적을 전제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성 그 자체이다. 형이상학이 없고 자연철학적이며, physica가 최고의 철학이다.

한편 근대 이후의 필연은 과학적 결정론에 따른다. 우주는 결정론적 체계로 되어 있고, 그 체계는 과학적 법칙(공식)으로 포착된다. Plato의 physical necessity는 목적론적 사유를 전제하고 그것에 부수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근대과학에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성적이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우주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Stoa학파의 fatum에서의 섭리와 같다.

한편 우연(tyche, accident)이란 무엇인가? 운명과 필연 외에 또 하나의 중요개념인 우연은 목적이든, 법칙이나 필연이든, 이미 존재하는 어떤 질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Democritos 같은 기계론자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하나, Plato 같은 목적론자는 이 모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다가, 가끔 우연의 개입으로, 목적과 진로가 복잡하게 된다고 본다. 즉 계기, 기회(occasion), 행운(chance), 우연성(contingency)과 연결된다.

그런데 필연과 우연·운명·우발을 반드시 대립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우주가 이성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즉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필연인 동시에 우연이나 우발성이다. 그런 우주에 사는 인간은 운명이 된다. Stoa학파의 fatum은 필연이자 우연, 우발, 또 운명이 된다. Ananke를 이해하는 한 방식도 자연과학적 의미의 우연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법칙성에 따라 이 세계가 돌아간다고 할 때 그것에 맞지 않는 어떤 ‘편차’가 항상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Heisenberg의 ‘불확실성 원리’이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Democritos는 이 세계의 정연한 질서에는 어떤 목적개념이 없고, 원자의 모양과 위치, 배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목적은 없으나 이유는 있다. 또 그 이유가 목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연=필연으로 이해된 것뿐이다. 여기에서 우연은 우발적 우연이다. 즉 과학적 이유가 있을 뿐 형이상학적 이유는 없다. 원자들이 부딪치면 필연은 그 자체 형이상학적 우연=우발성이 된다. 확률(probability)은 개연적(probable)이란 용어와 관련이 있다. 개연성이란 “확실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뜻이다. 확률이란 약한 형태의 필연이라 할 수 있다. 필연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 사이에 우연이 개입해서이다. 확률론은 19세기에 체계화되나, A. Cournot에 의해 철학적 의미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개념의 뿌리철학은 어떤가? 개념은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개념 없이 이 세계를 직접 만나게 되면, 다양한 질적 차이로 지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다양한 것을 ‘붙잡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개념이다. 즉 개념이란 “미묘하고 유동적이며 모호한 인간의 경험 내용을 일반화하고 평균화해서 파악하는 것 (concept의 cept, Begriff의 greifen)”이다. 만일 개념이 없으면 인간의 경험이 그냥 지나가버리거나, 기억 자체도 혼돈, 혼합, 혼잡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경험과 개념은 서로를 전제하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 되면 ‘개념 없는 경험’, ‘경험 없는 개념’이 된다. 철학은 이런 개념의 복잡성과 원리의 뿌리를 명료화하거나 창조적으로 종합하므로 철학적 거장(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지적 성과가 녹아들어 있다. 통찰력과 직관, 경험이 담뱃 들어 있다.

이상의 철학적 논의의 요점을 정리하면, “원리란 겉모습은 비록 몇 마디 말로 표현되는 보편언명의 형식을 띠지만, 자연과 사회현상 속에서, 그리 쉽게 변치 않는 본원(arché) 또는 원동력으로 실재한다. 비록 현실과의 간극을 띠운다는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또 이들 원리의 뜻과 모습이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지만, 실재하므로 언제나 찾아질 수 있다(≠발명)”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발견은 발견하는 이의 온갖 지혜와 통찰이 다 녹아 있다. 위에 말한 통상적인 뜻의 원리도 그 뿌리를 알면, 사실에서 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더 근원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의 원리는 이런 원리를 말한다.

3. 이런 원리를 찾는 큰 길: 색 안경을 벗어야⁽⁴⁾

이런 원리를 찾는 길은 무엇인가? 그 근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장자(莊子)의 글

(4) 필자, 전계서, pp.xivxv, pp.33~54, pp.61~86, pp.99~149, pp.393~394 등 참조. 이 중 ① 장자는 『莊子』大宗사(大宗師) 편에서 인간이란 우물 안의 개구리나 여름 벌레, 곡사처럼 시간·지역·환경·교육 등에 의해 국한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물의 뿌리인 도(道)에 이르러야 유진지(有眞知)라 말했다. 천도(天道), 서무귀(徐無鬼) 편과 제물론(齊物論) 등에서도 지식의 유한성을 비유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때의 도는 우주의 ‘궁극실재’ 혹은 ‘근본원리(principle)’를 뜻한다.

② 우주에 관한 설명은 Carl Sagan, Cosmos, Drayan-Sagan Ass. Inc. 1980, 고전은 「고전의 힘: 과거로부터 온 미래」, 부산대, 2013.과 필자 전계서, pp.393~405 참조. 그리고 통섭과 인지과학 등은 E. O. Wilson,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ScienceBooks, Co. Ltd, 2003. 등 참조.

에는 노자(老子)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도(道)의 경지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도(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각자가 보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면 빨간색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빨간색 안경을 벗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붕(鵬)과 같이 하늘처럼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한눈에 바라보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세계를 매미의 미시적 안목으로 보려 해서는 절대로 이해 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더 큰 세계(붕의 세계=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든 그 사물의 이치(원리)를 바로 알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 일의 흐름(원리)을 아는 사람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를 기준(현재의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아집을 버리고, 즉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높은 데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지에까지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각자가 쓰고 있는 색안경, 즉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많은 영명한 철인들이 걸어 왔던 길을 먼저 섭렵해야만, 정글을 벗어나 새로운 광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I. Kant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에게 사물이 검게 보인다면, 검은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는 게 자기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Hume(‘오성에 관하여’), Descartes(‘성찰’), Bacon(‘신기관’), Rousseau(‘에밀’)같은 철학자들은 물론, 경제학자들인 Smith(‘국부론’), Marx(‘자본론’), Keynes(‘일반이론’)도 경제분야, 특히 산업사회에서 같은 말을 했다.

영명한 철인들이 이미 제시한 여러 철학·방법론이란,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여러 다른 생각과 방법들, 상술하면 주체인 인간이 객체인 자연·사회·인간 자체를 인식하는 존재론, 결정론, 가치론, 인성론, 인식론, 방법론 등 여러 시각과 방법에 다름 아니다.

철학·방법론에는 원리의 뿌리와 복잡성을 명료화하거나 창조적으로 종합하려는 철학적 거장이나 현인들의 모든 지적 성과와 통찰력이 담뿍 들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고전에서 찾아질 수 있다. 고전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원리를 찾는 방법과 그런 원리의 변용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고전은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 ‘세상의 근원과 처세의 지혜에 대한 영

감 어린 금언'을 머금은 시대를 초월한 정전(正典)이다. 고전은 이미 수대에 걸쳐 생존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객관적 가치기준에 의해 집대성된 지식, 즉 원리와 원리 발견법까지 두루 담고 있다.

색안경을 벗는 길, 즉 자연·사회·경제·철학과 방법론 및 인지과학적 여러 접근법을 동원해서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보편언명의 뿌리를 찾는 길, 이러한 긴 터널을 어떻게 경유해야 할까?

여태껏 인간지성이 알아낸 길은, 먼저 자연과 인간의 구분 즉 자연과학과 사회·경제학의 구분이다. 현실은, 자연적 현실과 사회·경제적 현실로 엄연히 구분된다.

자연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자연적 사실과 그 근원적 뿌리인 실체나 실체가 동일하다. 인간의 가치·판단 및 욕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Heisenberg의 불확실성 원리와 웜홀 및 블랙홀 등을 논외로 한다면). 자연이란 지구 위의 자연만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cosmos)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우주의 크기는 태양의 반경 60억 km(6.6광년)×활상완(반경 7500광년)×은하계(반경 5만 광년)×국소은하군(반경 350만 광년)×국소초은하권(반경 1억 300만 광년)×대규모구조(반경 6억 광년)×다른 우주(10^{500})이고, 이 속에는 100억 광년 거리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웜홀이 있고 또 상대성 원리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굴절되어 그 곳 한 시간이 지구 7년에 해당하며, 빛과 물질을 빨아들여 다시 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까지 존재한다. 대단히 천지현황(天地玄黃)하다.

그런데 인간의 현대 자연과학기술은 이러한 우주를 관측하고, 그 구조와 실체를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태양권 밖에까지 또 생물체의 나노수준 이하의 미시세계까지 항해와 탐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물리환원적인 통섭적 첨단과학기술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며 명백하다. 이러한 자연원리에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오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만일 인간의 감정,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 지구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곧장 우주 공간에 낙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실 및 자연원리와 사회경제현실 및 사회경제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경제원리를 찾는 첫 번째의 가장 큰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원리와 다른 이러한 경제원리(자연+인간)를 찾는 길은 어떠해야 할까? 여기에는 무엇보다 역사 속의 사실에서 원리를 찾으려 한 E. H. Carr의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가 말하는 현실과 원리간의 관계에는 ① 현실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현실을 사실(facts)로 보고 이때 사실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② 자

연현상과 달리 사회속의 사실을 보는 인식의 인식은 인간의 판단, 가치, 선택에 따라 다르며, 그래서 사회적 사실속의 원리도 이런 사회과학학자의 가치 판단 및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과 원리간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가 긴요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는 결국 사회 vs 개인, 과학 vs 도덕, 특수 vs 보편, 원인 vs 인과(결정론, 우연론, 변수선택), 진보와 여건변화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철학적 과제가 많이 개입된다.

인간이 개입되는 역사·사회적 사실이란 무엇인가를 풀이할 때는 독일 철학자 L. von Ranke는 “그것은 실제로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숭배한 생각은 실증주의자인 영국의 Locke, Russell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들의 생각은 “역사와 사회란 확인된 사실들을 사회과학에 모아놓은 것이다.”

이에 반하여 T. Parkins는 과학을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의 선택체계”라고 정의했는데,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사실이라는 딱딱한 속 알맹이가 객관적으로 역사가의 해석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은 어리석은 오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독일의 Dilthey, 이탈리아의 B. Croce는 모든 역사와 사회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역사가의 중요한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들은 “생선장수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접근할 수 없는 더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기와 같다. 그리고 어떤 고기를 잡아 올릴 것인가는 때로는 우연에, 그러나 대개는 바다의 어느 곳을 선택하여 낚시질하는가에, 그리고 어떤 낚시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좌우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라고 본다.

이렇게 사실과 가치, 판단, 선택의 관계에는 사회와 개인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역사와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는가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된다. 역사와 사회를 과학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한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즉 ① 역사와 사회는 특수한 것을 다루며, 과학은 일반적인 것을 다룬다. ② 역사와 사회는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 또 ③ 역사와 사회는 예견할 수 없다. ④ 역사와 사회는 인간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다. 나아가 ⑤ 역사와 사회는 과학과는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는 역

사·사회와 과학의 차이를 표현하며 역사와 사회는 과학과 달리 보편적인 것도 아니며, 명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종교와 도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치를 내포하며, 따라서 해석과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예측과 통제할 힘은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역사와 사회에서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결정론과 연관되는데, 결정론이란 모든 사건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고 그 하나 또는 여러 원인 중에서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 사건은 다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찰 자료가 같다면 틀림없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달리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말은 흔히 ‘필연적인’, ‘불가피한’, ‘도망갈 수 없는’ 또는 ‘어쩔 수 없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며, 필연성이란 결국 철학과 연결된다.

이러한 여러 철학적 과제에 있어 Carr는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의 선택체계”일 뿐만 아니라 “인과적 지향의 선택 체계 즉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 중에서 중요한 것을,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 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후관계를 자신의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모델에 짜 맞추는 역사가의 능력”이다. 그 밖의 다른 인과적 전후관계들은 우연적인 것으로 배제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후관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arr는 이후 역사와 일반, 인과관계와 결정론에 관한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다른 표제가 붙은 6장의 초고를 더 썼고, 과학의 방법론에 관해서도 방대한 노트를 모아놓았다. 거기에는 Popper, Kuhn, Plato, Kant, Polanyi, Einstein, Freud 등도 살피고, 그런 오랜 연구 끝에 객관적인 역사가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는 “사회 안에서의,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는 시야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시야를 미래에 투사하여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더 심원하고, 더 지속적인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능력(원리 발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arr는 Parkins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도 철저히 추상화한 나머지, 역사와 전혀 접촉할 수 없게 된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계량경제학 안에 빠진다는가, 철학자들이 논리학과 언어학에 꼭 잡힌다는가, 문학평론가들이 문체기술론 안에 숨듯이 ‘숨는 일(taking cover)’이 없어야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Carr는, 자연과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경제학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나아가 사회학과 정치학에도 비록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객관성, 일반성이 역사에도 있음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Carr의 노력은 경제현실에서 경제원리를 찾으려는 경제학자에게도 기본적인 참고가 된다.

경제학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연+인간’이므로 역사학에서 보다 더 자연이 개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깊이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철학도 알아야 하지만, 사회철학은 물론 경제철학·방법론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Carr의 분석을 더 확장하여 자연·인지학과 아울러 경제철학·방법론, 특히 이 중 ‘인간학’을 천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도 소비, 생산, 노동, 분배, 유통, 시장, 금융,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인간학(人間學)이 깊이 개입되기 때문이며, A. Marshall까지도 “경제학은 인간 동기의 과학이고, 다른 도덕과학과 잘 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인간학의 터널을 경유하게 되면 그 터널 끝에서는 Smith, Marx, Keynes와 같이 반드시 경제원리의 새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4. 경제원리를 찾는 길⁽⁵⁾

이러한 역사현실과 경제현실을 감안하면서 경제원리(언어로 표시될 때는 보편언명)의 뿌리를 찾는 작은 길은, 한마디로 경제현실을 추상화 또는 단순화하는 것인데, 그 순서는 어느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전제와 가정을 여건에 맞게 설정한다. 자연과 다른 경제의 특이성(자연+인간)과 복잡성(자연+이인)을 감안하여, 특히 가정을 Galileo적 접점을 찾아 설정한다. 이 접점을 넘어서면서까지 수학 등으로 완전형식화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가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경제원리는 경제현실과 멀어지게 된다. 여기에 철학이 개입된다.

둘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분류와 유형을 분명히 한다. 연구의 목적을 효율과 경제

(5) 필자, 전게서, pp.393~400 참조. 특히 pp.222~295 등 참조. 여기에는 경제원리를 찾는 방법, 즉 추상화와 단순화의 여러 방법과 복잡성의 문제, 가정과 수학의 문제, 완전형식화 중 형식적 모델링기법과 계량경제학적 기법의 문제 등을 상술하고 있으며 경제원리의 구조와 변수선택의 문제 등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음.

제민 중 어디에 두는가, 그 범위를 경제와 비경제(권력, 전쟁 등) 어디에 두는가를 분명히 한다. 또 분석을 위한 설정 범위를 설정하고, 흐트러져 있는 분석 단위와 크기를 분명히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경제현실을 대변하는 개념과 중요하고 기간이 되는 변수를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이를 몇 마디 말이나 방정식(반드시 수학적 방정식이 아니라도)으로 단순하고 우아하게 표현한다. 또 이것이 경제현실에 맞는지를 알아본다.

예컨대, Keynes와 Friedman은 다 같이, “이론이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과 변수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Keynes는 불안정한 투자의 한계효율곡선, 낮은 이자율에는 탄력적이나 높은 이자율에는 불안정한 유동성함정 등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의 투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며, 또 소비성향, 승수 등 새로운 개념과 이들의 소비와의 관계, 이러한 투자와 소비 등 주요변수가 GNP를 결정한다는 유효수요이론, 즉 국민소득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에 반해, Friedman은 통화량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는 통화이론을 펼쳤다.

Smith와 Marx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의 이론은 Keynes나 Friedman과 달리 경제여건이 판이한데다 이론구축의 목적과 철학이 달랐기 때문에 전제와 가정부터 상이하겠지만, 이들은 개념과 변수선택도 서로 달랐다. 즉 Smith는 자유시장, 완전경쟁, 수요·공급 일치 등을 가정하고, 분업, ‘보이지 않는 손’ 등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가치론에서 출발, 여러 경제이론을 마련하였는데 반해, Marx는 유물변증사관의 정식에 따라 사회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잉여가치 등 새로운 개념을 설정한 뒤 노동가치론, 자본구조, 이윤율 하락, 공황이론, 사회주의 이행론을 전개하였다.

Ricardo는 Smith의 국부론, Bentham의 공리주의, Malthus의 인구론 이론에 근거하면서 완전경쟁, 완전고용, 노동가치설, 고정생산계수, 수확체감, 임금기금설, Say의 법칙 등 10가지 가정에 비교우위 등 새로운 개념으로 자본축적→노동수요증가→인구증가→곡물수요증가→열등지 경작증가→곡물가격상승→지대 및 임금상승→이윤감소→계급대립→영국자본주의 위기 등의 이론체계를 건립하였다.

Veblen은 습득적 이해, 본능, 자쟁력, 효율철수, 양친본능, 제작기량, ‘게으른 호기심’, 의전적 행태의 이중성, 과대소비, 타협, 증오, 담합, 궤변, 부재자 소유 등 수많은 새로운 개념과 변수를 도입하여 제도학파를 만들었다.

이 밖에 최근 들어서는, 예컨대 D. Kahneman 등이 heuristic라는 새로운 개념과, 대표성, 가용성, 인과성과 귀인, 과잉확신, 위험지각, 기점화와 조정 등 새로운 심리 변수를 선택, 기존의 기대효용이론을 넘어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이론을 정립하고, 이로써 행동경제학을 구축, 경제학에 하나의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J. Rawls는 정치사회에서 누구도 어떤 상태에 놓일지 모른다는 ‘무지(無知)의 베일’을 가정하고, T. Hobbes 의 사회계약론과 J. Lockes의 대의민주주의론, J. J.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만들면서, 여기에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결합해, “무언가 선택할 때는 내 이익만 쫓기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한 데, 이것은 최하층민도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정의론(正義論)을 정립, 정치학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이와 같이 경제는 물론 종교에서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올바른 개념과 변수선택 외에도, 수많은 원리발견법 중에서 올바른 방법론을 선택하는 일도 경제현실을 단순화하는 데 꼭 필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경제학 연구방법론에도 수많은 방법론이 있다. 예컨대, ‘연역·추상’(Ricardo-Senior-Whewell-Jevons-Cairnes-Robbins-Hayek-Knight)과 ‘실증·귀납’(Mill-Hutchison-Machlup-Friedman-현대주류경제학자들), 이들을 종합한 ‘통합·변증’(Smith-List-Marx-Keynes)론자들이 있었고, 이 밖에도 ‘제도론’, ‘생물학적 유추론’, 1950년대 들어서는 과학철학 중 ‘논리실증론’, ‘반증론’, ‘패러다임론’, ‘과학적 연구프로그램론’과 이를 이어 최근에는 ‘과학적 실재론’, ‘구축론’, ‘다원주의 방법론’, ‘경제 수사학’, ‘형식적 모델링 기법론’까지 등장, 가히 백화제방격이다. 이런 여러 방법론에 따라 경제현실을 보는 눈과 방법이 달라짐은 물론 경제현실을 대변, 대표, 표상하는 원리의 모습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경제현실을 풀이하는 연구방법론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① 경제현실 특히 21세기 경제는 본질적으로 복잡, 가변, 연기적이기 때문에 지식의 상대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② 동시에 경제현실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 이것이 서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③ 경제원리를 찾는 방법 특히 연역과 귀납, 추상과 검증 등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Mill의 오랜 고민을 넘어 이들이 함께 적용되는 종합, 통합, 변증법과 나아가 제도, 경제수사학 및 인지과학의 원용도 함께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A. Marshall도 기본적으로 철학·방법론적 사상을 지녔으나, Ceteris Paribus(다른 사정이 동일한 한)이라는 가정을 방법론적 교량(bridge)으로 하여 원

리의 과학화 세계로 들어갔다. 경제현실은 자연+인성의 종합이므로 따라서 과학주의, 조작주의, 관례주의, 기능주의, 구축주의 등 한 면만 보는 견해는 배제한다. 물론 Ricardo와 같이 천재성을 지닌 학자라면 연역 하나만으로도 경제현실을 충분히 정확하게 표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많은 방법론 중 21세기 경제에 합당한 방법론을 지혜롭게 선택할 때, 가정, 변수선택과 함께 비로소 올바른 경제원리가 찾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변수와 방법론의 선택 외에도 경제연구의 원천, 이론의 적정구조에 대해서도 나름의 그림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위 넷째의 방법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위의 가정, 개념, 변수와 방법론의 선택에는 온갖 철학, 지혜, 경험이 담겨져 있으며, 통찰력(洞察力)과 혜안(慧眼)이 없는 경우는 선불교(禪佛敎)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손가락으로 달(진리 또는 원리)을 가리킬 경우 손가락을 원리와 착각하는 격”이 된다. 직관, 통찰력,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흔히 ㉠ 변형된 ‘ceteris paribus’ vs 자동적 ‘mutatis mutandis’, ㉡ 단일요인분석, ㉢ 잘못된 집합성, ㉣ 부적절한 분리, ㉤ 잘못된 개념화의 경우 잘 나타나며, 이것은 결국 경제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연유되는 것이다. 이 때 통찰, 직관이란 인간 고유의 초능력(super power)이다. 인간의 통찰력은 정신적이며, 경험적·반사적·지적·개체적이고, 의지나 말까지 넘어서, 형이상학적 양심과 이어지는, 순수하며, 인간 실재와 사과의 기초가 되는 초능력이다.

일곱째(전제), 이런 원리, 나아가 어떤 이론, 어떤 지식도 본질적으로 전제 위에 선다. 여건이 바뀌면 전제가 바뀐다. 이들 이론 또는 지식은 모두 전제를 지닌다는 점에서 ‘한편’에서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원리는 특히 그러하다. 포괄적이라는 종교도 마찬가지이며, 불교나 힌두교도 연계론을 전제한다. 어떤 전제하에서 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기 선택의 문제이며,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모든 전제가 다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택할 수 있는 전제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원리(지식) 속에는 모든 원리(지식)의 씨앗이 담겨있다. 다만 각기 처한 시대와 장소(여건)에 따라 어떤 이는 어떤 원리(지식)를 보고, 또 다른 이는 그와 다른 원리(지식)를 따르게 될 뿐이다. 이것이 가정과 함께 여러 경제학설이 공존하는 근본 이유이며, Smith, Walras, Keynes, Friedman 등 여러 학설 및 이론이 서로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여덟째(인지), 인지과학의 발달에 따라 ‘사회·인성의 이론화’가 더 정밀하게 되면, 통찰·직관의 도움을 받아 21세기 여건에 맞는 새로운 경제이론, 즉 제2의 Smith, Marx, Keynes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경제학자들이 찾고 있는 작은 경제원리도 이러한 큰 원리에 맞게 그 모습이 새롭게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경제원리의 모습과 성격: 물처럼 흐른다⁽⁶⁾

경제원리의 성격이란, 제4장에서 언급한 여러 철학방법론과 인지·통섭론 등 긴 터널을 경유하면서 평상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터널의 끝에서 빛을 만나면서, 나름의 통찰과 직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본 경제원리의 본질을 말한다. 한 마디로 “경제원리는 물처럼 흐른다”로 요약된다. 물은 자연스레 막힌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땅의 형세에 따라 흐름을 조절하듯, 원리도 이와 같다. 손자(孫子)는 병법(兵法)도 이와 같다고 한다.

물이 강에 이르면 흐름이 거세어진다. 계곡을 만나고 댐에 갇히면서 또 거센 바람에 격랑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를 넘어 더 큰 강으로, 더 넓은 바다에 이른다. 원리도 마찬가지다. 21세기 들어 더 거세진 인간의 오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식 및 구조변혁으로 인해 사회의 복잡성이 더 가중되게 보일지라도, 원리는 스스로 이에 맞춰 모습을 바꾸면서, 더 큰 도의 바다로 합류하게 된다. 원리에 고정된 모습이 없는 것은 물이 일정한 모양을 띄지 않는 것과 같다. 원리가 현실의 변화에 쫓아 그게 맞게 모습을 바꿀 때 비로소 참된 원리가 된다.

(6) 필자, 전게서, pp.150~295, pp.409~411 등 참조. 여기에 경제원리의 다의성, 다양성, 연기성, 불완전성, 간극성, 복잡성 등이 상술되고 있음. ① 손자병법은, 손자(孫子)의 시계(始計) 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전술이란 물과 같다(兵形象水). 물이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술도 방어가 철저한 곳을 피해 허점을 친다. 물이 땅을 따라 흐르며 모양이 만들어 지듯이, 전술도 적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 물에 일정한 형태가 없듯이 싸움의 흐름도 늘 변한다. 오행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달이 바뀌듯 적에 따라 전술을 바꿔 승리를 거두면 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② 성경 Isaias viii:6에서도 “The Waters of Siloe”라 말하면서 시로에의 물을 이사야의 상징으로 알았다. 여기서도 물은 고요하게 흐를 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머물다가 계곡이나 바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물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쓰라림(bitterness)와 모순(contradiction)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이사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영생의 기쁨을 맛볼 것이라 말한다. 필자의 저서 영어명칭도 “The Waters of Economic Principles”인데, 이는 경제원리란 경제현상의 생명력 있는 뿌리임을 이름하는 것이다.

물론 물도 언제나 깨끗할 수만은 없다. 흙탕물이 있고, 독성 있고 생명을 앗아가는 강도 있다. 현실도 정치, 이념, 전쟁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불안정이 더 일상적일 수 있다. 자연은 그래도 비교적 한결 같다할 수 있지만, 인성은 경제에 관한 한 선과 악 중 악이 더 크게 작동됨이 보통이며, 정치, 종교 등과 뒤섞여 쉽게 흙탕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은 경제원리는 ‘보편언명’이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이 흙탕이든 순백이든, 혼란이든 안정이든, 빈한하든 풍요하든, 우리에게 이들을 해석, 설명, 예언할 수 있는 유익한 지혜를 제공한다. 이런 원리는 말이 없고,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어 찾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물(事物)을 보는 대로 보는 한” 서로 부딪히면서도 질서 있게 조절되어 현실과 함께한다.

기원전 96년경에 쓰여진 사마천(司馬遷) 사기화식열전(史記貨殖列傳)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 此其大較也. 皆中國人民所喜好, 謠俗被服飲食奉生送死之具也. 故待農而食之. 虞而出之. 工而成之. 商而通之. 此寧有政教發徵期會哉? 人各任其能. 竭其力, 以得所欲. 故物賤之徵貴. 貴之徵賤, 各勸其業, 樂其事. 若水之趨下. 日夜無休時. 不召而自來. 不求而民出之. 豈非道之所符. 而自然之驗邪?

(*이것이 대략적인 모습이다. 모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간에 널리 사용되는 피복과 음식이고 산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쓰는 용품들이다. 그래서 농민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어민과 산민이 물자를 생산하면 공인이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은 유통시킨다.(생산·유통) 이런 일들이 어찌 정령이나 교화, 징발 또는 약속 등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는가?(개입)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춰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분업·소비) 물건 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고, 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이다.(물가)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분업·직업)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으로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낸다.(시장) 이것이 어찌 도(원리)에 부합되 저절로 그리되는 징험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옛날에도 생산·소비·분배·유통·물가·분업·시장 등이 서로 이어져 물과 같이 흘렀으며, 이것은 디지털화되고 생명이 중시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예컨대 부부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우위론, 직업·계층에 관

한 차액지대설, 금융에 관한 화폐수량설과 그레샴법칙, 소비에 관한 앵겔법칙, 임금에 관한 임금철칙설, 노동에 관한 Lewis 모델 등 경제원리는 물론, 나아가 속담, 격언, 사자성어, 경전 등 생활, 윤리, 생명, 사회·인성 원리들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원리의 모습을 띄면서 함께 흘러간다. 마치 사람의 몸속에서 두뇌의 원리, 심장의 원리, 골격의 원리, 모발의 원리가 각기 다르면서도 모두 서로 조화·조정되면서 신체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찾는 새로운 원리는 모두 이런 원리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천지만물의 이치(원리)이며, 그러나 이 원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습을 달리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원리와 섞여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현실은 그런 것이며, 원리도 그런 것이다. 경제원리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경제원리는 물처럼 흐른다”를 경제철학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① 경제원리의 현실성(現實性)과 가변성(可變性), 연기성(緣起性), ② 다양성(多樣性)과 다의성(多義性), ③ 경제원리의 복잡성(複雜性), 불완전성(不完全性)과 현실간극성(間克性)을 뜻하는 바, 이들을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리는 보이지도 않고(不見), 만져지지도 않으며(不觸), 냄새도 없고(無臭), 색깔도 없다(無色). 원리는 도(道)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런 도는 형상이 없고(無形), 넓고 크며(廣大), 어디서부터 따라 들어가야 할지 어렵다. 도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無言).

(나) 경제원리는 자연법칙관+사회·인성관이므로 자연법칙관만으로 따르는 면도 있지만 자연법칙관만에 따르는 자연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연원리는 자연에 언제나 실재하며 불변이지만(주류경제학이 고전 물리학에 머무르고 있는 한, 즉 Einstein의 상대성원리나 Heisenberg의 불확실성원리를 논외로 하는 한) 경제원리는 경제현실이 변함에 따라 언제나 변하고 움직인다(가변성).

즉 자연원리는 고정(固定) = 불변(不變) + 부동(不動) = 절대(絕對)적인 성격을 지니나 경제원리는 생동(生動) = 가변(可變) + 가동(可動) = 상대(相對)적인 성격이 짙다.

이런 경제원리를 자연원리를 적용, 발견하려 하면 가상(소설, 영화, 그림 등)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조작(操作), 제작(製作), 모조(模造), 작위(作爲)를 넘어 가짜를 창조(創造), 발명(發明)하게 된다.

(다) 이런 원리는 언제나 또 자연, 사회, 경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자연에는 자연원

리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원리, 경제에는 경제원리가 있다. 각자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중첩적’, ‘통합적’으로 마찰 없이 스스로 조정되고 마무리되면서 큰 원리 속에 작은 원리, 그 속에 더 작은 원리가 서로 통약(通約)되면서 연기(緣起)되고 있어 실재가 유지된다(연기성). 이런 원리가 없으면 실재가 소멸한다.

즉, 종교에서는 사랑, 자비, 인(仁) 등이 중핵을 이루며 악(惡)과 서로 공존한다. 이 속에는 역사의 중핵(中核)과 보호대(保護帶), 그 가운데는 사회의 중핵과 보호대가 있고, 또 이것이 자연과 연결된다. 경제에서도 중핵과 보호대가 있고 이것이 종교, 정치, 사회의 중핵, 보호대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하고 진보한다.

또 이런 경제원리에는 큰 원리(동력이 큰)가 있고 작은 원리가 있다. 큰 원리는 자연, 사회, 경제 전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전쟁, 혁명, 대발명, 첨단기술 혁신 등), 작은 원리(개인의 생활 등)는 큰 원리 속에서 더 작은 부분을 움직이게 된다. 각 원리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강물이 흐르듯 작은 원리(잔물결)는 큰 원리(큰 물결)에 묻혀 하나의 더 큰 원리로 합쳐 도도히 흐르게 된다. 개체의 ‘자유’와 ‘의도성’, ‘창조성’ 때문에 이들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연과 사회 및 경제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변전되는 한, 전체적 또는 포괄적으로는 스스로 조정되고 마무리되면서, 큰 원리 속에 작은 원리가, 그 속에 또 더 작은 원리가 서로 통약되면서 공존하게 된다. ‘연기(緣起)론’과 ‘자비(慈悲)론’의 Mahayana Buddhism, 또는 아마존 열대지대 내에 생존하는 여러 동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정되고 마무리되는 이유는 원리란 원래 불완전하고 현실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원리가 완벽하다면 조정 때 서로 마찰이 생겨 온전히 작동하지 않게 된다(불완전성, 간극성). 사회와 경제의 조정에는 사랑, 협조, 자비는 물론 질투, 시기, 분노, 고통, 투쟁 등의 인성도 개입된다. 경제란 인간의 본성, 특히 오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이므로 경제원리는 자연원리와 유사성도 있지만 상이성이 더 많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발견해야 한다.

(라) 원리의 모습과 기능도 여러 가지이다. 그 뜻도 다양하다(다의성, 다양성). 즉 ① 기간적으로 장기·불변에서 단기·가변, ② 분야나 종류 면에서도 강하고 단단하며, 분명하고 한결 같은 것에서 약해지기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③ 철학의 존재론에서와 같이 자연원리는 존재=현실이고 불변이라 하지만, 경제원리등 사회·인성원리는 가변적이고 다양하다. 불교에서는 원리가 모두 변하고 바뀐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쉽게 변하는 것이 있고 오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마) 경제원리, 이 중 경제이론의 참모습은 자연원리보다 본질적으로 복잡하며(복잡성), 가변적, 연기적임을 인정하여 진리근사성(verisimilitude) 또는 원리의 상대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취함이 온당하다. 동시에 경제현실에는 양면성(兩面性)이 언제나 공존하며 이것이 서로 수렴한다고 생각된다. 경제현실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서 경제원리의 뿌리가 찾아질 수 있다.

(바) 이런 경제원리는 경제현실에서 찾아야 한다(현실성). 현실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언제나 움직이며 변화한다. 경제원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 여건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추상도 추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분석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변수선택, 나아가 사상, 이념도 현실, 즉 여건에 입각하지 않는 한 무용이다.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변화무쌍해도 현실이야말로 신이 만들어 놓은 ‘있는 것 그 자체’(Hegel의 사상처럼)이다. 현실을 떠난, 현실을 무시한 어떤 과학적 방법이나 모델과 이론, 법칙도 무용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관념론이나 도구주의가 아닌, 또 물질과 정신 등 이원이 공존 수렴하며 자연 ≠ 사회 ≠ 경제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고가 중요하다.

물론 현실주의와 실재주의는 다른 것이고, 현실=실재=존재이다. 현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being), 실재(reality), 실체(substance), 본질(essence)과는 상치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실재(우리 감각이 인지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비가시적인 존재, 즉 이데아=현상=신)에 대한 입장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실증주의(實證主義), 현상론(現象論), 실용주의(實用主義)와 존재론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실재의 복수화(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는) 등과 나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즉 현실이 실재라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현실적인 세계의 실재성(특히 nano 세계와 bio 세계, 가상현실)까지 나타난다. 현실을 실재와 상치되거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실재적이지만 현실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이 실재에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지닌다. 특히 경제원리는 그러하다.

(사) 경제원리의 참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발견성). 즉 발명(invention)이 아니라 현실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discovery)하는 것이다. L. Wittgenstein의 말과 같이 “수학주의자나 주류경제학자들의 잘못은 이들이 현실에 없는 것을 수학으로 만들어, 마치 현실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는 점이다.

발견이 아니라 발명, 창조, 작위(作爲)한다는 것은 사물을 현실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의 사유공간, 추상공간 속에 옮겨다 놓은 채 갖가지 방식으로 조작해 낸다는 것, 사물의 ‘등가물(等價物)’을 인간 특유의 추상공간에서 조작하고, 조작한 대로 현실 사물을 변형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환상(phantasia)’, 즉 외관, 실재와 이데아의 그림자, 시물리크스, 사물이 아닌 이미지, 상(像)의 운동, 즉 상상(imagination)을 뜻한다.

자연의 본성은 주어진 것이고, 작위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과 다르다는 것은 이성과 오성(분석적)을 가지나 동시에 감성, 즉 정동(精動), 감동(感動), 변감(變感), 감응(感應), 기질(氣質), 심기(心氣) 등을 가지며, 나아가 영혼, 지각, 기억, 상상, 환상, 직관, 욕망, 용기, 신념, 의지, 윤리의식, 지혜 등을 지니고, 이들 이성 아닌 감성이 우발성, 우연, 전화, 역(易, 끝없는 변화), 변형을 낳게 되고, 모방, 표상, 재현, 대의(代議), 가상(假像)의 세계와 연결되게 된다. 이런 감성이 수학 등을 앞세우면 현실을 조작,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극에까지 이르게 된다.

현대 주류경제학의 과도한 추상화와 수학적화 특히 형식적 모델링기법 및 계량경제 모델링기법, 즉 한마디로 경제현실에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는 억지가 된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원론을 위시한 여러 경제학 교과서 및 논문에서 모델을 ‘모형(模型)’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은 ‘항공기 모형’, ‘선박 모형’, ‘건축 모형’과 같이 실재를 규모만 축소한, 대단히 정태적인, 나아가 단순, 형식적, 소극적, 움직이지 않는, 또는 비철학적인 ‘용어’이며, 따라서 모델과 같이 분석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동태적이고 철학적인 ‘개념(概念)’의 함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경제현실(여건)은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으며, 이런 현실을 허무주의에 바탕을 둔 동상유질적 구성물로 표현하는 모델로 현실타당성 있게 다루려면 모델 스스로 동태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델은 통찰, 종합, 직감, 경험 등 철학·예술성을 필요로 하나, 모형은 수학과 논리만으로 그려지고 다루어진다. 이와 같이 모델과 모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 위의 경제원리의 모습과 성격은, 앞 장과 함께 경제학원론이나 미시·거시 경제학 등에 등장하는 여러 경제원리(가설, 모델, 이론, 법칙 등)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6. 옛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⁷⁾

1. 요즘 경제학자들은 경제원리란 서양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나 논의되는 것으로 치부한다. 더욱이 A. Smith의 「국부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여기는 경제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다. 기원전 중국 봉건 농촌경제에서도 경제원리가 엄연히 존재했었으며, 이러한 원리의 성격과 모습도 지금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여기서는 고전 중 사마천(司馬遷)의 사기화식열전(史記貨殖列傳)을 예시한다. 화식열전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책에서 예시한 여러 경제원리의 실례 못지않은 경제원리들이 기원전 중국에서도 있었고, 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면서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냥 예시하는 것만이 아니고, 철학·방법론 중 특히 인간학(人間學)에 바탕을 둔 인간의 본성 중 이욕(利慾)이 근본이며 이를 산업과 분업, 생산과 유통, 시장과 화폐, 금리와 지세, 토지와 제도, 중상과 중농, 부국과 강병, 부민과 문화, 윤리에까지 이으면서, 이 가운데서 경제원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 서비스, 무역, 농업, 증권, 지식산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업운영, 경영전략, 상인정신에까지 언급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일어날 탈법, 남용과 이를 견제하는 예의엄치, 도덕과 법에 관련된 문제까지 두루 살피고 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라는 인간본성과 시장의 원리를 명백히 밝힌 것은 A. Smith의 국부론보다 2000년을 앞선 명쾌한 경제이론이었다.

이와 같이 화식열전만큼 고급일여의 경제원리를 담고 있는 고전도 흔치 않으며, 이것이 요즘들어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이유이다. 특히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부민부국(富民富國)의 이치(理致), 관중(管仲)과 자공, 사마천으로 이어지는 중국상가(商家)의 흐름을 21세기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서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여러 논거들은 요즘의 여러 경제원리와 비교해봐서도 경제원리로서의 성격과 요건에 조금의 하자가 없고, 그래서 예나 지금, 서양과 동양, 하등 다를 바 없음을

(7) 필자, 전개서, pp.361~390 참조. 이 중 인지과학과 통섭론은 pp.87~96, pp.368~379 참조. 생명자본주의의 J. Ruskin은 pp.381~389 참조.

알게 된다. 요즘 그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는 사기열전은 물론 다른 여러 고전을 살펴 봐도 원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식열전 내의 여러 경제원리들은 관자와 사마천의 인성통찰(人性洞察)에서 밝혀진 것이었지만, 이들이 열거한 사례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의 경험에서 실증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통찰과 경험이 함께 만들어낸 산물임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기열전의 경제원리는 다름 아닌 사마천의 통찰과 직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다.

2. 그러면 경제여건이 지금과 달리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뉴밀레니엄시대에는 어떻게? 1980년대 이후 진전된 경제사회의 소프트화(soft化) 및 지식화(知識化), 디지털화, 융합화는 경제구조의 변화, 취업구조와 소비구조, 투자구조의 변화는 물론 생활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경제의 소프트화 즉, 서비스, 정보, 광고, 디자인, 아이디어, 전자통신화, 투기, 증권, 금융자산운용비중의 증대 등은 기존의 생산 위주의 모델, 즉,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식화했던 모델이 작용하지 않게 되었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정보, 지식,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이버 경제의 디지털화, 가상화, 인터넷화, 통합화, 수렴화, 광속화, 개체화, 세계화, 혼란화는 기존의 가치·가격이론, 화폐이론, 분배이론, 성장이론, 무역이론 등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들 변화 모두를 검은 상자에 넣어버린 합리적 기대형성 이론이나 통화론자의 실증연구는 현실설명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고, 금리나 공공투자의 수평적 정책 효과도 승수효과로만으로는 도저히 현실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사상과 인성의 변화도 과학주의, 기계주의, 물질주의 등에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다. 이럴 때 경제원리 역시 가치창출의 원인이 어딘가에 따라 가치론, 가격론, 화폐론, 분배론, 성장론 모두를 다시 찾아야만 하게 되었다. 디지털 경제를 전통경제와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network) 내부효과(內部效果)와 규모의 경제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최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만, 디지털 속성상 생산, 복사, 유통, 판매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비용이 초기의 상품을 제조하는 데 대부분 소요되므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급속히 감소한다. 결국 초기비용이 높은 대신 한계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규모경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 외에도 고령화, 복지, 환경, 융합, 세계화는 물론 생명, 정신, '초과실재현상'이 중시되는 스마트(smart)화 현상 같은 또 다른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

로 생활패턴과 관습, 사고의식도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소위 ‘생명자본주의’(Vita Capitalism)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경제현상이 변하게 되면 경제이론도 그 모습을 바꾸게 된다. 마치 T. Kuhn이 ‘정상과학’에 ‘이상현상’(anomaly)이 생겨 과학혁명이 야기되고,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음을 논증했을 때와 똑같다.

3. 이러한 21세기 경제사회구조와 의식의 급변과 함께 인지과학도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혁명은 경제원리의 모습을 크게 바꾸고 있다.

1) 최근 들어 예전의 다윈혁명이 분자혁명으로 또 인지혁명으로, 이에 따라 인문학(경제학 등 사회과학 포함)도 진화인문학(진화경제학 포함), 분자인문학, 신경인문학(신경경제학 포함)으로 세분화되면서 발전되고 있다. 인류 최후의 연구분야라 말해지는 뇌과학은 인간의 뇌조직과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신현상이 뇌의 기능으로 환원가능한지를 알려 노력하고 있다. 뇌과학과 심리학, 경제학으로 구성된 신경경제학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선택, 선호와 선택, 능력, 투자와 소비 등 주류경제학의 주요 이슈를 인지과학적으로 분석, 시도하고 있다. 가상에 빠지지 않고 더 현실에 근접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인성원리 및 경제원리를 철학·이론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통섭론자들은 과학문화와 인문학문화간의 연결을 허물었다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유전자·문화공진화에서 인과적 사건들이, 물리학의 최종 통일, 살아있는 세포들의 재구성, 생태계 구성, 유전화와 환경의 공진화, 마음의 물리적 기초, 나아가 윤리와 종교의 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의 도움으로 인간 마음의 숨겨진 신비들을 대부분 알게 되었다고 해도, ① 특정한 개인의 마음이 예측 가능하고, ② 이들이 근본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③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고의 뇌확정 패턴을 모두 뉴런, 분자, 그리고 이온 수준에서 백만 분의 일 초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 백만 분의 일 초 후에 어떤 상태가 올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뇌보다 더 복잡한 작동방식을 채택한 엄청나게 큰 컴퓨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사고에 대한 단순한 결정론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사고 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 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자유의지가 없다면 마

음은 속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유기체의 시공간에서, 또 인식할 수 있는 자아에 실제로 적용된다는 면에서, 마음은 자유의지를 가진다. 통섭론자인 E. Wilson도 이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100년이 더 걸리더라도 마음의 비물질 환원성을 전도시키기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① 자연원리는 통섭론에 따라 빅뱅이나 암흑 물질이 어떻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10^{500} 이상 된다 해도, 물리환원주의가 지배적(prevaling)이게 될 것이다.

② 한편 경제원리(자연법칙관+사회인성관)는 인지과학의 발달에 따라, 지금부터는 J. S. Mill의 이중성을 넘어, Ricardo의 연역론과 Hutchison의 실증주의 같은 일원론을 넘어, ‘철학화 및 이론화’될 것이다(이론화되어도 불완전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연원리와는 상이하다. 통섭론과 같이 인문, 사회, 윤리, 종교는 통섭되지 않을 것이며 두 원리는 나뉠대로의 길로 발전, 서로 양립할 것이다.

③ 그 이유는 자연원리는 불변하는 자연에 바탕을 두면서 거기서 발견되지만, 인문 사회원리, 특히 경제원리는 변화하는 경제현실(자연+인간)에 바탕하면서 거기서 나뉠대로 새롭게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 경제원리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원리가 될 것이며, 이럴 때 비로소 새 Smith, Marx, Keynes가 탄생할 것이고, 영명한 경제학자라면 그 본질과 성격이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새로운 여건에 걸맞은 경제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의 미래(나아가 인류문명의 미래도)는 “사회, 인성을 인지과학으로 이론화하는 방법”에 좌우될지도 모른다. 특히 물체보다 정보, 지식, 창조, 생명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 생명자본주의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 ‘인성의 이론화’란, 자연=경제라는 주류경제학의 방법론과 달리 새로운 경제여건에 적응하는 새로운 인성을 인지과학으로 분명히 밝히고, 그래서 Ricardo, Mill, Keynes와도 다른 새로운 ‘인지과학적 인성’의 이론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현대주류경제학의 접근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산업혁명이 주도해온 산업자본주의와 지식정보혁명이 이끌어온 정보, 스마트 및 금융자본주의는 그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다. 산업금융자본주의는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유한한 것인데 돈만은 무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돈은 생물이 아닌 데도 이자를 통해서 자기증식을 끝없이 한다. 그래서 현대의 금융자본주의는 세계에

서 유통하는 실패없는 돈이 300조 달러로 불어나게 되었다. 모든 나라의 실제 GDP는 30조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끝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경제다. 2008년 8월의 세계금융위기는 그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생명자본주의다. 생명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생명을 밑천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물질 즉 재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만으로도 부족하고, 자원만으로도 부족하며, 육체적 노동만으로도 부족하고, 생명에서 모든 가치를 찾지 않으면 인간생활도, 지구 존재도 존립할 수 없고, 앞으로는 생명에서 산업자본이나 지식자본에서 얻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생명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때 J. Ruskin은 생명이 곧 부라고 보며, “생명 아닌 부란 없다”(There is no wealth, but life)고 말한다. 이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는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다. 가장 부유한 이는 “그 안에 내재된 생명의 힘을 다하여 그가 소유한 내적, 외적 재산을 끌고루 활용해서 이웃들의 생명에 유익한 영향을 최대한 멀리 미치는 사람”이다. “사실 이러한 경제학 이야말로 지금까지 존재해온 유일한 경제학이고 또 앞으로 그 러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학은 천국을 분열하고 파산을 부른 그 타락한 천사가 휘두른 경제학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부를 얻도록 인간에게 불굴의 의지와 지혜를 주신 신의 뜻은 “획득한 부를 낭비하고 남에게 다 주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이다.” 바른 소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명자본주의 경제의 핵심과제는 산업화와 정보화 때의 부를 넘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이다. 산업화와 지식화를 지난 21세기에 들어서서는 ICT나 인지과학의 발달, 기타 여러 첨단과학의 발달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유전자 조작, 나노기술과 생명과학을 통해 Green Collar Economy 또는 Biomimicry(생물체의 특성, 구조, 원리를 산업전반에 적용하는 생체모방기술)로 지구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산업자본에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생명자본주의 경제는 “생명을 살리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핵심 과제이다. 일단 긍정하고 넘어가자.

끝으로 Ruskin이 제의한 생명경제학의 틀을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적 변화에 맞는

경제학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생명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경제원리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를 Smith, Marx, Keynes 등이 이미 찾은 ‘경제원리의 구조와 조건’ 즉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학을 세운 같은 터 위에 새로운 경제학의 집을 세우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 새로운 여건과 사상, ② 목적, ③ 범위와 원천, ④ 방법, ⑤ 가정, ⑥ 이론(변수선택과 방정식), ⑦ 기능과 정책, ⑧ 평가 등을 분명히 하면 된다. ①과 ②는 상술한 바와 같고, ③은 경제만이 아닌 제도, 정치 사회, 역사 종교 등 Smith나 Marx같은 경제학자들이 채택한 넓은 범위의 대상을 포함하되, 특히 인간의 생명을 고려하고, ④는 인성을 인지과학으로 더 과학화, 예리화하는 방법을 구사, ‘인성의 이론화’를 추구하며, ⑤와 ⑥은 현대경제학이 배제하고 있는 생명, 사랑, 정의, 신뢰 등 중요 변수를 선택, 이들을 방정식(꼭 수학으로 만이 아닌)으로 엮어 이론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⑦, ⑧은 ⑤, ⑥이 확실하게 되면 스스로 풀리지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여건에 맞는 변수 및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만 하면, 제2의 Smith, Marx, Keynes 경제학이 탄생될 것으로 본다.

결언

이 글은 2014년에 쓴 필자의 저서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를 요약·해설한 것으로서, 단순히 현대 주류경제학의 가상성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지(자연)·만물(인간)의 이치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뿌리를 밝히고, 앞으로 경제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학의 뿌리는 알기 힘들지만(자연원리와 같은 완벽한 경제원리는 없다), 반드시 있고, 이것을 찾는 것이 경제학이다.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쓰는 경제원론이나 미시·거시경제학 등내의 경제원리는 이 글에서 밝힌 여러 종류의 원리들이 서로 혼재, 혼용되고 있다. 수요·공급, 기회비용, 인센티브, 차액지대설, 잉여가치설, Engel 법칙, Lewis 모델, 유동성 선호설 등 원리다운 원리들 즉 이 글에서 제시한 여러 평가기준에 합당한 원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원리들, 즉 Arrow-Debreu 이후의 현대형식적모델링기법으로 만들어진 여러 경제원리들, 예컨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Merton-Schölz의 파생금융상품 모델과 같이 현

실 아닌 가상을 추구하는 경제원리 또는 “물처럼 흐르지”않는 경직된 원리들도 허다하다.

이런 서로 다른 경제원리들 중 “좋은 겨자씨와 가라지”, 즉 옥석(玉石)을 가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의 새 길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463-8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번지 아이파크 302동 904호

전화: (031) 714-0482

팩스: (031) 714-9482

Email: wooheepark@hanmail.net

참 고 문 헌

- 박우희(2014):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사마천(기원전 96년): 史記貨殖列傳. 『사기화식열전』, 김원중 역, 서울, 민음사, 2007.
- A. Smith(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Ogles, Duncan & Cochran.
- E. H. Carr(1961): *What is History*, London, Macmillan,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역, 서울, 까치, 1997.
- E. O. Wilson(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Knopf, 『통섭,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 외 번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5.

Abstract

Waters of Economic Principles: Analysis via the Methodology of Natural-Societal- Economic Philosophy and Cognitive Science

Woo-Hee Park

Economics is a discipline that aims to discern economic principles from “economic facts,” but we are not or, sometimes, wrongly aware of these fac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ots of universal statements, that is, the true meaning of principles as in other academia.

The crux of wrong awareness is rooted from the fact that people try to find answers not from economic facts, but from “natural facts,” which utilizes the methodology of “standard” natural science based on the theory of molecular reductive consilience. Nature is fundamentally of “facts=reality.” Therefore, the physical reductive approach is theoretically applicable to the whole cosmos and inside the inner structure of the living body. By contrast, economic facts are composed of “nature+human being” in which the five basic desires, value judgments, and spirits of human beings are involved. The shape and entity of economic principles are substantially changeable, interactive, indeterminate, and complicated.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roots of economic principles”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natural-societal-economic philosophy integrated with cognitive science” to dismantle “the color spectacles from our eyes.” Achieving this goal requires intensive “human study.”

The waters of economic principles flow, resembling the waters of Siloe, Isaias’s symbol, that flow in silence, but sometimes in turbulence, bitterness, and contradiction.

Keywords: Economic facts, The methodology of natural-societal-economic philosophy, Cognitive science, Human study

